한국교회의 북한선교 현황 및 선교전략

-국내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6기 훈련팀[1]

[1]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6기 훈련팀에서 2008년 7월 3일 ~ 2008년 7월 25일까지 국내 수도권 및 지방권의 한국교회들을 중심으로 북한선교현황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Ⅰ.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북한은 2007년을 기준으로 5년째 연속 기독교 박해지수 1위[2]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종교,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폐쇄적인 공산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기독교 박해 정도는 2006년 이후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탈북민의 증가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감시가 극에 달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중국으로 피신했다가 북송 되어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 처형당하는 일은 지금도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분단 이후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어 온 북한선교는 그 동안 북한의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에 전략 또한 달리해 왔다.

지금까지의 북한 내륙선교와 미션 홈 사역[3], 국내 입국 탈북민 사역, 그리고 대북 식량지원 및 경제협력을 통한 선교전략은 북한정부의 감시, 중국정부의 강력한 탈북민 단속으로 인해 그 활동 범위와 성과가 위축되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시 식량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역 및 그들을 통한 북한내륙선교(현지인 선교), 북한 지하교회와 조선그리스도연맹을 통한 선교,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운동을 통한 선교 등 북한 선교에 대한 접근방법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사역에 있어서 선교와 통일의 연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단계적인 선교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선교전략 연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북한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보다 통찰력 있는 북한선교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4]. 때문에 향후 북한선교 방향의 재정립을 위해서 현재 남한 내 북한선교운동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요구되며 훗날 남북한 통일의 모습이 어떤 형태를 가지겠는가 에 따른 예측과 그에

---

[2] 오픈도어미션통계조사(www.opendoors.or.kr)에서 실시한 기독교 박해 지수 조사 자료. 오픈도어즈미션통계조사는 복음의 제한지역에서 복음 때문에 억압과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국제선교단체이다.
[3] 조선족들과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던 북한선교 초기 소수의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보내거나 중국 내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역장소를 마련하여 보호하던 사역.
[4] 임현석 목사(NIM 사무총장), “남한 내 북한선교 역사와 전망”

따른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본 조사팀은 저번 기수가 대북 NGO단체들의 대북지원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선교전략을 도출한 데 이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북한선교와 통일준비, 이 두 과제를 감당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하기로 한다. 또한 현재까지의 선교전략들을 재검토하여 기존의 북한선교전략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이를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선교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5].

현재 많은 한국교회에서는 북한선교에 손을 대지 않고 있으며 설사 그와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내용들은 보안상 비밀사역으로 처리된다. 공식적인 지표로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남한 내 북한선교운동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어렵다. 이때문에 본 조사팀에 직접 담당 실무자를 찾아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조사의 목적

1) 현재 한국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탈북민사역 및 북한선교사역의 현황과 흐름을 조사하여 적절한 선교전략을 생산한다.
2)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사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들을 극복^보완하고 통찰력 있는 선교전략과 사역 방향성을 제시한다.
3) 북한선교 관심자, 종사자들에게 실제적인 선교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교회를 위한 사역자들과 중보기도자들을 세운다.

3. 조사지역 및 대상

서울, 인천, 분당 수도권 지역과 그 외 강원도, 대전, 포항 등의 지방권지역의 북한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관계자들을 찾아가 조사한다. 인천과 분당 지역에서는 인천의 인천새빛교회 PN4N[6], 분당의 할렐루야교회 북한중보기도회, 서울 지역에서는 사

---

[5] 박영환 교수, “북한선교길라잡이”, (서울, 서울신학대학교 북한선교연구소)

[6] Prayer Network for North Korea and the Nations의 약칭으로 북한과 열방을 위한

랑의교회 북한사랑선교부[7]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북한선교회[8], 영락교회 북한선교센터[9], 그리고 교회다움 교회 코집(CO-GKB)모임[10]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팀이 조사지역을 크게 둘로 나눈 것은 조사 기간과 범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이며, 북한선교에 있어서 큰 축을 맡고 있는 대형교회들이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권의 경우, 각 지역별로 사역하는 한국교회들을 분류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4. 조사 주제

현 한국교회 북한선교사역 현황조사

5. 현장조사기간: 2008년 7월 3일 ~ 2008년 7월 24일[11]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중보기도네트워크 모임이다. '북한사랑'이라는 월간 큐티진, 중보기도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새빛교회 오성훈 목사가 PN4N과 북한사랑 책자 발간을 책임지고 있다.

[7] 사랑의 교회에서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모임으로 매주 목요일 부흥한국 팀과 연계하여 예배하고 일요일 오후마다 모임을 가진다. 조성길 목사가 책임을 맡고 있다.

[8]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긴 모임으로 교회의 정책과 별개로 운영된다. 담당목사가 있고 교인들이 스텝을 맡아 북한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재방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9] 영락교회 북한선교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북한선교에 대한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맡고 있다. 담당목사가 있으며 임원들은 정기적으로 성도들 내에서 교체된다. 영락교회 이광욱 목사가 담당목사로 있으며 황광성 집사가 회장, 이희성 집사가 서기를 맡고 있다.

[10] 탈북자 출신인 오 테레사 전도사가 세운 공동체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다. 현재 NK 100일 기도를 교회다움 교회(민 걸 담임목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11]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8년 3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2008/07/03- 2008/07/21	한국(수도권)[12]	한국교회 담당자 선교사 및 실무자	현장조사 인터뷰
2008/07/17- 2008/07/19	강원도 예수원 삼수령	삼수령 북한학교 관계자	현장조사 인터뷰
2008/07/21- 2008/07/24	한국(지방권)[13]	한국교회 담당자	인터뷰

6. 조사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현지 조사팀[14] 4명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이태훈	생명식품공학부, 글로벌에디슨학부 (07)	디렉터, 문서자료부장
2	이성은	국제어문학부 (02)	예배부장
3	남궁미나	글로벌리더십학부 (08)	총무부장

7. 조사방법

1) 사전조사

(1) 문헌 조사

① 인터넷 조사:

---

[12] 서울, 인천, 분당 지역의 인천새빛교회(오성훈 목사), 사랑의교회(조성길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이재방 목사), 오도선교회(이응삼 목사), 교회다움 교회(오데레사 선교사), 영락교회(이광욱 목사, 이희성 집사 외), 서대문 바위샘교회, 할렐루야 교회, 높은뜻숭의교회 열매나눔재단(채아람 자매), 남서울은혜교회(정베드로 목사), 총 10개의 교회와 선교단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13] 대전 지역의 늘사랑교회(박은성 선교사)와 한민교회(정교진 전도사), 포항 지역의 포항침례교단(허명수 목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14]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8개 지역조사팀 중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미션팀(Mission Team)과 전문가팀(Expert Team)이 있다.

PN4N 중보기도네트워크(www.pn4n.org, club.cyworld.com/pn4n)
북한연구소(http://nkorea.or.kr)
서울신대북한선교네트워크(www.love4n.org)
에스더기도운동본부(www.pray24365.org) 외 교회 홈페이지 다수

② 문헌조사:
임현석 목사, "남한 내 북한선교 역사와 전망"
최성규 목사, "한국교회, 통일과 북한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노정선 박사, 『KNCC의 전략: 과거 현재 미래』
오성훈 목사, 『북한선교방법론』』(서울신학대 북한선교연구소) 외 다수

2) 현장 조사

(1) 관찰 조사

① 예수원 삼수령 목장

(2) 인터뷰

① 교회 실무자 인터뷰 – 인천새빛교회 오성훈 목사 외
② 일반인 인터뷰 – 기독북한인연합 이민복 대표 외

(3) 문헌 조사

① 자유의사람 성경반 7년의 발자취 (서울: 영락교회 북한선교센터: 2007)
② 국가전자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③ 한민족평화선교연구소
④ 그 외 관련 문헌 조사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오늘날 북한선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그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구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 대부분은 수도권 지역의 대형교회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북한

사역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 또한 북한선교를 하는 교회의 경우에도 북한사역을 비밀사역으로 간주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전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선교에 대한 연구자료나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북한선교에 대한 논문 자료들은 많지만 한국교회의 개별적인 사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한 시점에서 해당 교회를 찾아가 실무자들을 인터뷰하고 조사를 실시한 이번의 리서치는 매우 의미가 깊다. 질적 조사를 통해서 실무자들과 깊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북한선교의 현황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적으로 향후 북한선교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및 제언을 통해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현장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및 조사 결과 객관적인 도표나 정량적인 자료보다는 실무자의 구두로 된 정보가 많아 현장성은 있지만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조사팀이 조사한 주제가 현재 한국교회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사무적인 어조나 어휘를 사용하여 정보 제공자들이 본 조사팀을 취재팀으로 오해하여 거리를 두거나 질문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대답하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첫째로는 북한선교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좀 더 조사팀과 정보 제공자 간의 상호이해관계를 잘 정립하여 신뢰도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어휘나 어조를 지나치게 사무적이지 않도록 사용하여 정보 제공자가 부담스럽지 않게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Ⅱ.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에게 있어서 북한선교는 '통일' 이라는 민족적 과제이자 '선교' 라는 성경적 과제를 의미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전 교회적인 차원에서 북한선교를 시작했으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교전략으로 북한선교의 접근방법을 달리해 왔다.

현재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대부분 개별적인 교회의 정책 차원에서 비밀스럽게 이뤄지고 있으며 각 교회마다 사역은 다양하지만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그 결과 다양하고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도출되었지만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연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선교는 각 교회의 규모에 따라 일부 교회의 사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북한선교에 대한 전략과 정보 또한 일부 교회로 편재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하고 향후 사역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있다. 따라서 본 조사팀은 북한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북한선교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토대로 현재까지의 북한선교를 재검토하여 기존의 선교전략들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보다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현황

1. 일반개요

한국기독교총회가 정의한 북한선교 '5개 문 사역'에 따르면, 북한선교는 특징별로 크게 '앞문, 뒷문, 옆문, 윗문, 영문' 사역으로 나뉘며[15] 각각의 문에 따라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현황이 사역별로 분류된다. 본 조사팀은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조사한 한국교회들 중심으로 각 문에 해당하는 북한선교 현황과 종류를 사역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앞문선교

앞문 사역이란 남북한간의 공인된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역으로서 종교교류협력,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프로젝트사업, 대외관계형성, 개방개혁유도, 그리고 평화정착사업을 포함한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대북지원사역 및 그 외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조선그리스도연맹을 통한 북한교회 지원 또한 이 범주에 해당된다.

1) 대북 물품지원

한국교회가 교회차원 또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이나 생활용품, 그리고 그 외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북한선교에 있어서 양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우호적인 대북정책에 따라 1995년 북한의 큰물피해 이후 근 10년간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다[16].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물품을 지원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

15 박요셉,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보고』, (서울: 한국기독교총회 제2회의 | 발표 4), p. 78~81
최성규 목사, "한국교회, 통일과 북한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16 』 박영환 교수, "북한선교 길라잡이", (서울, 서울신학대학교 북한선교연구소)

그 중에서도 본 조사팀이 조사한 사랑의교회 내의 북한선교회에서는 교회 전교인에게 저금통을 지급하여 1년에 2억 원 정도를 모금을 받는다. 이 모금액에 교회의 후원금 1억 원을 더하여 총 3억 원을 북한의 탁아소에 매달 옥수수, 콩, 콩기름, 설탕, 소금, 이불, 아이 옷과 같은 물품들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 조중접경지역으로 운송되어 조중 물자교환 경로를 이용하게 된다. 운송된 지원 물자들은 연변과기대 북한지원팀과 북한의 물자이송팀과의 물자교류를 통해 북한에 보급된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 당시 신의주에서 한경직 목사를 필두로 이남한 북한 사람들이 세운 영락교회 또한 매년 7천만원 정도의 빵을 신의주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2) 공장건립지원

일반적인 대북지원으로는 한계를 느낀 한국교회들은 북한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건립을 지원하기 시작했다[17]. 공장건립지원사역은 철저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전문 기술자를 남한에서 직접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공장 내 인프라가 구축되고 모니터링 문제가 해결된다면 향후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통한 선교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18.

공장건립과 같은 대북지원은 사역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대형교회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선한사람들(굿피플)이라는 NGO와 협력하여 북한 옥수수기름공장 건립과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좀 다르게 영락교회는 교회 예산으로 중국 단동에 빵 공장을 세워 신의주에 정기적으로 빵과 두유를 탁아소나 유치원에 배급하고 있다.

---

[17] 김형석 회장, "한민족복지재단의 대북지원과 북한선교", (서울, 한민족복지재단)

[18] NKFR 5기, "자체 평가 및 향후 계획", 『선교지역연구 제3권 1호』, (포항, 국제지역연구소, 2007), p.368-369

3) 의료지원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의 지원사역 외에도 북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위해 의약품이나 의료시설, 의료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역들이 있다. 북한에 지원되는 주된 의약품은 영양제와 결핵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부 항생제가 포함된다[19]. 그 밖에 구급차와 주사기, 메스, 등과 같은 간단한 의료기기를 지원하거나 북한의 열악한 병원들의 보수나 재건축을 지원하는 사역이 있다.

영락교회는 신의주 지역의 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의 아이들과 환자들에게 결핵 퇴치 의약품 및 기타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진벨과 같은 의료 NGO단체를 후원하여 간접적으로 타 지역에도 결핵약을 보급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산하 북한선교회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원받은 1억 원 정도의 칼슘제를 보내고 있고 앞으로는 북한 아이들의 빈번한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 구충제를 함께 보낼 계획이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북한 평양 지역에 2010년 '조용기심장병원 건립'을 완공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3. 뒷문선교

북한에 직접적인 성경 배달 및 선교사 파견을 통해 초창기 북한 선교 기틀을 마련한 모퉁이돌로 대표되는 뒷문선교는 남북한의 화해, 협력의 앞문선교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통한 북한의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선교이다.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며 조-중 접경지역에서 대다수 이뤄지고 있고 북한과 남한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역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처소교회사역

[19] Ibid. p.364-365

중국과 몽골, 러시아 등지에 처소교회를 세워 제 3국으로 나오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구출 및 양육을 하는 사역이다. 대부분 공식적인 비자를 받고 나오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이곳에서 양육을 받은 북한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

현재 처소교회 사역은 비자를 받고 공식적으로 중국 등지에 나온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압록강이나 조중접경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는 탈북자들을 동북3성에 접촉하여 현지 사역자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데려온 탈북자들은 세를 내어 빌린 장소에서 15~20일 정도 단계적인 복음으로 무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례까지 받은 후 탈북자들은 15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아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지게 된다. 이렇게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사람 10명 중 1명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중국을 탈출해서 제3국이나 남한으로 보내는 탈북자 구출사역도 행해지고 있다.

2) 지하교회 후원

중국 조선족 사역자들을 통해서 남한 내 탈북 동포들의 가족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돕는 사역이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하고 자생적인 지하교회(가정교회)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탈북 동포의 가족을 통해서 지하교회를 돕는 사역 역시 가능하다.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사역 중 하나이며 발각될 경우 해당 교회가 곤란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교회차원보다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은밀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4. 옆문선교

옆문선교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우방국가들, UN, 세계적인 언론방송, 인권단체, 그리고 유력자들을 동원하는 협력사역이다[20]. 이 사역의 종류를 실 예로 들어 몇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1) 북한인권을 위한 교회 간 연합사역

개별 교회가 한 가지 사역을 전담하여 맡기에는 재정과 인력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침례교단 소속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은 침례교북한선교통일포럼을 만들어 북한의 꽃제비[21]들을 구출하여 포럼에 속한 교회들에게 보내어 책임지게 하는 협력 사역을 구상 중이다.

2) 언론매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사역

아시아 독립 저널리스트들의 네트워크인 '아시아프레스' 는 '북한 취재팀'을 구성하여 2007년 11월 '림진강' 이라는 격월간지를 창간하였다.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주제를 갖고 탈북민 및 북한 내 거주하는 비밀 기자들을 채용하여 아시아에 북한의 실상을 문서로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독북한인연합의 이민복 대표는 2004년 11월 타임지 기자와 함께 지하교인 두 명과의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기독교 탄압 및 실상, 지하교회의 현실을 알리며 한국 내 효과적인 북한 선교 전략을 생생하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했다[22].

3) 사업을 통한 새터민 정착지원 및 고용창출, 성공모델 제시

북한선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교회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즉 새터민들의 고용 창출, 인재 양성, 사회복지와 같은 분야들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교회의 예

---

[20] 박요셉,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보고", (서울, 한국기독교총회), p.79

[21] 북한에서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을 일컫는다

[22] 크리스천투데이, "가짜교회는 정성지원, 지하교회엔 무관심", (2005년 2월22일)

산으로 재단을 세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열매나눔재단은 국가에서 사회적 목적 기업으로 설립되어 일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로 새터민[23]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법인으로 탈북민을 위한 박스공장인 '희망공장'을 2008년 오픈 하였다. 재단의 목표는 남한 내 탈북민의 정착지원 및 창업을 돕고 '탈북자 기업인'이라는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새터민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덜어내는 것이다.

5. 윗문선교

윗문선교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이다. 북한에 직접적으로 전단지를 통해 라디오가 들어가 극동방송이나 기독교방송 등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북한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나 중국으로 탈북한 제 3탈북민들은 방송, 인터넷, TV, 미디어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다. 현재 윗문선교는 교회 자체의 사역보다는 개별적인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윗문선교는 크게 방송매체, 네트워크(인터넷), 그리고 문서선교로 나눌 수 있다[24].

1) 방송매체 사역

복음방송을 통한 선교로 서울의 KBS사회교육방송이나 극동방송, 기독교방송을 북한 및 주변국가에 송신하는 사역이다. 방송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영향범위가 매우 방대하며 북한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진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선교방법이다. 폐쇄적인 사회 내에서 사회, 복음방송을 통해 남북간 문화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복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25].

---

[23] 노무현 정부 때 탈북자들을 순화하여 정의한 말

[24] 허성업, 『북한선교 역사와 현황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선교정책의 원리와 방향에 관한 연구』(서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4), p.105

[25] 극동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을 통해 대북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열린북한방송은 지난 5기 대북NGO에 대한 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2) 네트워크 사역

통일 후 북한에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와 더불어 인터넷이 보급되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북한 복음화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큐멘터리와 북한 주민용 프로그램이 제작, 개발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3) 문서 선교유형

북한에 성경, 전도지, 기독교서적, 기독교 화보나 뉴스지 등을 살포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제약이 크지만 윗문선교 중 복음의 전파효과가 제일 큰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문서선교에는 모퉁이돌선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성경전달 사역과 풍선 전단지 사역 등이 있다.

(1) 성경전달 사역

중국 접경에 있는 처소교회 및 선교사들의 거처에서 탈북민 및 비자를 받고 중국으로 넘어오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이들이 복음을 들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견되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서 북한에 성경이 보급되고 라디오나 mp3 등의 복음 전도 기기가 전해진다[26]. 한국교회들의 뒷문 선교 현황은 남서울은혜교회, 늘사랑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등의 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모퉁이돌선교회를 주축으로 북한지역에 1987년부터 탈북자 또는 조선족을 통한 비공식 루트로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이다. 주로 비자를 받고 중국 등지로 나온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어 북한에 다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 지하교회에 성경을 전달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중접경지역의 두만강에 수 천 권의 성경을 살포하

[26] Op. cit.

여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 있다.

(2) 풍선 전단지 사역[27]

북한에 풍선 전단지를 날리는 사역이다. 기독탈북인연합회[28]와 모퉁이돌을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교이며 폐쇄된 북한에 전도지와 구제품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북한인들이 알 수 없었던 복음과 북한의 실상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전단지는 질기고 물에 젖지 않는 비닐 소재이며 안쪽으로 내용을 인쇄하여 두 비닐을 압착하여 붙이기 때문에 글씨가 악천후에 의해 지워질 가능성이 낮다. 직접적인 복음에서부터 남북한 경제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인쇄되어 있다.

6. 영문선교

영(靈)문선교란 영적인 기도, 통일선교 전략연구, 북한선교사 양육, 통일대비연구, 통일기금마련, 통일시민정신운동, 교회 및 국가에 통일대비기구 조직, 통일시대 지도자 양성 등의 사역을 뜻한다[29]. 이 보고서에서는 추가적으로 한국으로 온 탈북민을 위해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남한성도들에게 북한에 대해 알리고, 북한사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등도 영문선교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1) 중보기도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사역이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이다. 이번 조사 결과, 북한사역에 있어

---

[27] 기독탈북인연합회를 주축으로 두리하나선교회, 피랍탈북인권연대, 납북자가족협의회,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 유엔보호운동본부,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방송, KBS,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인협회 등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8] 대표 이민복 선교사

[29] 최성규 목사, “한국교회, 통일과 북한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 영적인 기도가 교회마다 이루어지고 있었다.

(1) 기도 연합 네트워크

각 교회의 개별적인 기도모임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모여 공통된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연합 네트워크로는 인천새빛교회의 PN4N과 코집(CO-GKB)의 NK 100일 기도회가 있다.

인천새빛교회의 PN4N은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으로 인천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인천목요모임을 매주 가지고 있다. 또한 PN4N은 월간큐티 '북한사랑'을 출판하여 구체적인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여러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한다.

서울 명동 교회다움 교회에서는 오 테레사 선교사를 중심으로 코집 모임을 가지고 있다. 코집에서 시작한 NK-100일 기도회는 주일을 제외한 100일 동안 매일 주제를 달리하여 북한을 위해 중보 하는 기도회로 전국의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기도 네트워크이다.

(2) 북한중보기도운동

북한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정기적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라는 주제에 대해 북한에 뜻을 품은 교인들이 모여 기도회를 가지며 여러 가지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교회의 경우 기도회 시간에 북한민주화위원회[30]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영락교회는 북한선교에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기도운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매달, 또는 매주 교회 내에서'북한'이라는 주제로 매주 북한을 위한 금요기도회가 있다. 또 이와는 별개로

[30] 탈북자들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결성한 대북인권단체. 현재 황장엽 씨가 회장으로 있다.

DMZ 와 같은 휴전선 내에 예배 처소를 세워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2500개의 다락방[31]에게 북한지역을 10개씩 나누어 맡아 기도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통일 후에는 북한의 각 지역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던 다락방들이 해당된 지역으로 파송 되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새터민(탈북자) 사역

(1) 새터민정착지원

새터민 사역이 시작된 이래,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사역 초기 단순하게 시작되었던 것이 매년 새터민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역이 체계화되고 규모가 커지며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새터민정착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회들의 새터민정착지원 사업은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영락교회는 사역초기 새터민들에게 60만원어치의 생필품[32]을 지원하였는데 수가 많아지고 합가(집을 합침)[33]하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하나원 수료자에 한해 개인당 15만원어치로 예산을 낮추게 되었다고 한다.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없음을 깨달은 몇몇 교회들은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은행거래 등과 같은 정착교육과 기독교 복음교육사업을 하여 취직을 알선해 주고

---

[31] 사랑의 교회 분반공부반을 일컫는 말이다. 교회 내 다락방에서 새신자 양육과 기도모임, 묵상모임 등이 진행된다.

[32] 정보제공자의 말에 따르면 사역 초기에는 이불・침구세트, 전기밥솥, 전자레인지를 탈북자 개개인에게 지원했다고 한다.

[33] 합가하는 탈북민들의 경우 국가에서 임대 아파트를 주지 않으며 이들에게는 침구세트만 지원한다.

창업을 돕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북한선교회에서는 탈북민교육 사업으로 남한 정착교육(은행거래 등)과 기독교 복음교육을 통해 졸업 후 취직을 알선해 주고 창업을 돕는다. 탈북민에게 돈을 대주고 몇 년 내로 갚으면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업이 있다. 또한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인성 쪽에 치중하여 한 기수마다 55명 정도를 8개월 동안 교육하며 생활비를 지원한다.
또한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오면 돈을 요구하게 되는데 무분별한 소비와 지원을 막기 위해 영락교회에서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한 분기가 끝나면 연령에 따라 차비, 또는 학생의 경우 10~2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한편 여러 질병에 잘 걸리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목돈의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결연관계를 맺어 진학관련 상담 및 치료비도 지원해 준다.
또한 높은뜻숭의교회, 사랑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가 연합하여서 검정고시와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탈북민 대안학교, 여명학교와 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를 지원하여 3개월 단위로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탈북민들의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 탈북민양육프로그램

남서울은혜교회는 2000년 통일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탈북민 사역을 시작하였다. 한 두 가정에서 시작되었던 사역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작은 예배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2007년부터는 남한 사람 50명, 북한 사람 50명 정도가 모여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및 교제를 나누고 성경공부를 진행하게 되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모임 외에도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탈북민 가정과 자

녀들의 교육을 도와준다. 또 성경공부와 심방을 통하여 탈북민들의 신앙성장을 돕는다.

사랑의 교회의 북한 사랑선교회 또한 탈북민들을 위한 양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탈북민 약 44명, 섬김이 60명이 주일예배 후 모여 기도하고, 1:1 양육과 강연회, 성경공부를 실시한다. 섬김이들은 탈북민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려주고, 친구가 되어준다. 또한 '느헤미야 학교'를 열어 초, 중, 고, 대학생을 위해서 과외를 실시하여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탈북민 청소년들에게는 장학금의 형태로 10~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영락교회에서는 탈북민들을 위한 성경공부 반으로'자유의 사람 성경학교' 과정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탈북민들이 성경공부와 함께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60~9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양육과정에 속해있으며 매주 참석한다.

(3) 탈북민 지역연대프로그램

영락교회에서는 노원구, 양천 지역의 탈북민들의 연합회를 만들고 기수별(선교학교 졸업자)로 회비를 거두어 지역교회와 연계하여서 지역 연대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때 그 지역의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서로 교제하며 회비로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기도 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탈북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있는 교회(하나교회)에 목사를 파견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영락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네 교회가 교대로 찾아가 예배를 드리며 분기별로 공연을 한다.

영락교회에서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거쳐야만 하는 군 수사기관(대성공사)과 같은 탈북민 조사기관 내에 교회를 개척(평화교회)하고 원목을 파송 하여 예배처소를 지원하여 매주일과 주중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3) 북한선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1) 북한관련세미나, 포럼

현재 북한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일부 교회에서는 북한 관련 세미나, 포럼을 개최하여 북한의 현황에 대해 알리고 북한 언어로 된 성경, 찬송가 편찬과 같은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34].

많은 교회들이 인권단체나 민간단체와 연합하여 이러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엠-파워(Em-power)라는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북한사역에 대해 이해하고 북한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2) 교인들의 계몽과 교육

한국교회들은 교회 내적으로 교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북한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육하기 위해 교인들의 교육과 동원을 감당하고 있다.

남서울은혜교회에서는 신입교사양육반을 운영하여 탈북민들을 돕는 교인들에게 10주간 훈련을 받게 한다. 또한 영락교회에서는 북한선교학교를 열어 교회 내 성도들에게 북한선교에 대해 알리고 훈련시키기 위한 개념훈련과정으로 10주 강의과정을 연다. 이 훈련과정은 한 해 한 번 열리고 있으며 수료자들은 단동에서 도문까지 비젼트립에 참가하게 된다. 현재까지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약 1,500명 이다. 또 1년의 고급과정으로 북한선교학교를 이수한 사람이 수료할 수 있는 북한선교대학이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북한선교회에서는 한기총(한국기독교총회)에서 실시하는 통일선교대학 프로그램에 입학하

[34] 사랑의교회 북한사랑선교회 담당자 조성길 목사의 제언이다

여 교육을 받고, 판문점, 땅굴과 같은 분단의 현장을 찾아가 남북통일·북한선교에 대한 사명을 일깨운다. 또 모퉁이돌선교회에서 실시하는 선교사 파송, 북한에 성경 보내기 프로그램에 동참 · 후원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훈련 및 교육과는 좀 다르게 대전 늘사랑교회에서는 교인들을 북한선교에 동원하기 위해 북한 음식체험, 통일기도대행진을 진행하여 성도들에게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성도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붐 조성을 위해 북한 사진전(120점 정도)을 개최하고 북한말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남북간 문화차이를 좁히고자 한다.

4) 기타 사역

(1) 사역내용의 공유

사역내용의 공유는 향후 북한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까지의 사역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교회들이 보다 쉽게 북한선교를 감당하고 연합사역에 동원될 수 있다. 영락교회는 국내적인 활동으로는 북한선교를 진행하는데 제한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의 LA 영락교회와 유대관계를 통한 북한선교를 계획했다. 대북지원의 모니터링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락교회는 LA 영락교회에 북한사역10년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함께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2) 북한선교를 위한 연구기관

현재 KPI(한국평화연구소)라는 학술연구기관에서 남북관계 및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북한선교를 감당하는 많은 교회 실무자들이 이 연구단체의 자료들을 열람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선교에 대한 연구는 현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으며 실무자와 교감이 잘 되고 않고 있다.

Ⅳ. 한국 내부의 현재 이슈들

1. 촛불시위

촛불시위란 시민들이 광장 등에서 촛불을 들고 주로 야간에 벌이는 시위이다[35]. 2008년 8월 촛불시위에서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는 5월 한국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조치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 대한 것으로 현 정부를 질타하는 것으로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시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5월 시위가 시작된 초기의 의도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본래 촛불시위는 폭력이 동반되지 않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통로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및 무력시위에 의한 공권력과의 대치로 인해 그 의미는 퇴색되어 버렸다. 그러나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촛불시위가 하나의 문화제로서 자리잡게 된 것은 보다 온전한 민주화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촛불시위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앞으로 현 정부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더 지나야 밝혀질 것이다. 현재 촛불시위는 시간 경과에 의한 동원인원의 감소 및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어 주춤한 상태이다.

2.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

이번 여름에 있었던 금강산 피격사태는 현 정부와 시민사회가 기존의 남북관계를 재확인하고 북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사태와 더불어 그동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잠잠히 대치해 왔던 의견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공론화되어 시민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금강산피격사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현 정부, 현대아산의 행정적인 무능함을 비판하는 입장과 북한 공산당을 비판하는 입장으

[35]다음 백과사전, '촛불집회', (검색일 8월 2일)

로 갈리고 있다.

피격사태에 대해 본 조사팀이 인터뷰한 한 탈북자 분의 제언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북한 초병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군인들에게 남한의 부르주아 계층만 금강산 관광을 온다고 교육을 시킬뿐더러 사상이 투철한 자들만 초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한 사람의 사상자가 나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변을 당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Ⅴ.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1) 북한선교의 역사[36]

(1) 반공의 시기(1945-1972)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남한사람들의 정서는 반공적으로 변해갔고 이러한 정서는 한국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일성 정권의 반기독교 정책으로 인해 남북한 기독교 인사들에게 극단적 반공사상이 형성되었다. '북한정권'하면 바로 적그리스도로 이해되었고, 1953년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북진통일기원대회가, 1961년에는 멸공의식을 양양하는 '통일촉성 이북인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1966년에는 한국기독교 반공연맹이 창립되었으며, 1967년에는 아시아 기독교 반공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극소수는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 분열의 시기(1972-1988)-보수/진보진영

한국교회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북한선교 전략이 차별화되면서 그에 따른 내부적 분열이 일어났다. 분단 이후 보수진영에서는 통일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였는데 북한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함으로 현재의 북한선교활동이나 통일을 위한 활동보다, 통일 이후 북한에 다시 분단이전의 부흥했던 기독교의 회복을 목표로 했다. 이와 같은 보수진영의 활동 방향은 미래 지향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과거 지향적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수진영은 활동 초기에 방향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을 많이

[36] 오성훈 목사, 『북한선교론』, (서울: 서울신대 북한선교연구소: 2004) p.57~73

받았다.
보수진영에서는 연합, 단일, 독립을 3대 원칙으로 하여 기독교북한선교회 (김창인, 길자연 목사), 한기총(한국기독교총회)을 중심으로 한 북한교회재건운동, 6.25 이전 북한의 3천 개 교회 복구 등의 사역들을 분단과 6.25 기간 중 월남한 실향민 목회자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분단 이후 진보진영의 통일운동은 남북한 화해와 교류협력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KNCC[37]를 중심으로 남북한 교회협력 운동이 일어났다. 1972년, 남북대화의 시작 후 조선기독교연맹이 생기고 1986년에는 남북교회 대표자들의 첫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스위스 글리온 회의 이후 계속된 남북교회 만남과 통일기도문' 형태의 선언문이 발표 되었다. 한편 진보진영은'조그련(조선그리스도연맹)을 주체체제 속의 교회로 인정하고, 지하교회의 실체를 부인하기도 하였다.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80년대부터 북한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1995년부터 시작된 수해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사정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심지어 90년대 중반에는 많은 지역에 수돗물과 전기공급까지 끊어졌다. 이러한 북한경제와 식량사정의 악화로 인해 남북한 정부는 식량지원과 협력방안 등을 위한 회담과 이산가족상봉 등의 남북교류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편 북한 핵개발 의혹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의 정치적 긴장이 진행되었다.

---

[3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의 약칭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전도, 친교, 봉사, 연구, 협의, 훈련 등 공동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구현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합체이다.

탈북민 구호활동은 90년대 들어서 북한경제의 악화와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 탈북과 더불어 90년대 말까지 북한선교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이다. 초기에는 연변지역의 조선족 신자들이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대부분 감당했다. 그리고 직접 선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북한선교단체와 교회들은 직접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조선족 중 신자인 사람들을 요원으로 이용, 식량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비밀리에 전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조선족 방문에 제한을 많이 가하면서 조선족을 통한 직접선교의 방법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당시 중국의 개방과 더불어 조선족과 한족 선교를 위해 중국 내 동북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이 탈북민들이 급증하고 사역적 필요를 발견하면서 탈북민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3) 도약의 시기(1988-2000)

90년대 중반 대량 탈북이 시작되고 수년이 지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대중매체와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내 탈북자들만이 아니라 북한내부의 심각한 상황을 비밀 촬영한 영상들이 방영되자 한국 사회전반에서와 한국교회에서 북한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적 차원과 교회적 차원에서 중국지역을 방문하고 탈북자 사역에 동참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졌다.

북 조선족들과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던 초기, 탈북자의 숫자가 적었을 시기에는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보내거나, 중국 내에서 정착을 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식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탈북자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탈북자들을 보

호하고 식량을 지원하는 형태로 점점 바뀌었다. 일정기간 동안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신앙훈련등의 사역을 하는 장소를 '미션 홈'이라고 하며 이 사역을 시점으로 북한내륙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단기간 보호를 받으면서 전도된 사람들은 식량을 지원받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중국 내 장기체류로 이어지면서 미션 홈 사역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북한 내륙선교의 다른 방법들로 일시 식량 탈북자들[38]의 북한 내 가족들 지원사역, 북한 내 순회전도 및 지하교회 개척, 북한 내 소규모 사업을 통한 사역들이 전개되었다.

국내 입국 탈북자 사역은 초기에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 숫자가 적을 시에는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대형교회와 연결해서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탈북자들의 입국 증가로 인해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사역의 확대 및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교회와 사회의 단기적 관심으로 인한 소외와 탈북자들의 국내 부적응 등이 문제가 되었다.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은 자본과 기술은 남한이 제공하고 노동력과 토지는 북한이 제공하는 합영방식의 농장경영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의 대표적 수혜 지역은 북한의 자유무역지대이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개발 정책의 실패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로 주목 받게 된 곳으로 나진 선봉 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두레마을이 들어가게 되었고 마을에 상주하는 남한의 요원들은 이곳을 삶을 통한 전도를 추진하고, 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북

[38] 식량 탈북자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이유 없이 단지 북한의 열악한 식량난 때문에 외부로 식량을 구하러 나온 탈북자들을 일컫는다.

한선교와 통일운동의 전초기지로 삼게 되었다.
연변과기대는 나진선봉 기술대학 설립계에서 평양과기대 설립을, 한국이웃사랑회는 소를 전달하는 사업을, 한민족복지재단은 제약회사 설립과 나진시 인민병원 의료지원 및 운영을, 선명회는 국수공장을, 예장합동교단은 빵 공장을 지원하는 등 여러 단체의 대 북한 지원 사업과 선교가 이루어 졌다.

이것은 직접적인 선교활동은 아니지만,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기독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주며 본격적인 선교를 위한 토대(기반)를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KNCC를 중심으로 조그련과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사역을 하면서 남북한 교회 협력과 통일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한기총을 통한 북한주민 돕기 활동도 이루어 졌다[39].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들을 대상의 선교와 북한내부 선교활동으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분단 이후 계속 신앙을 비밀리에 지켜온 신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조그련의 잦은 외부 접촉으로 조그련 내 변화의 징후들을 발견되었다.

(4) 수렴의 시기(2000-현재)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화해와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동안 북한선교의 가장 큰 방해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던 남북의 분단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다시금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의 확대는 많은 교회들이 북한의 복음화에

[39] 노정선 박사, 『남북선교협력과 KNCC의 전략』,(서울: KNCC)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금강산육로관광이 실시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활성화 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국교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편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실상들이 드러나면서 한국교회의 관심은 북한의 개방과 더불어 지하교회 신앙인들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로서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화 된 분단으로 인한 통일 및 북한선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무관심이라는 장애요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선교적 활용 가능성을 놓고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개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 동안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진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교회 간, 교단 간 연합사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실적, 제도적 입장 차이에 의해 많은 교회들이 연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40].

2000년 이후 계속된 탈북자들의 급증 또한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탈북자 사역에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으며 앞으로의 탈북자 사역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제 및 한국 사역단체(NGO 포함)의 활동현황

(1)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41]

[40] 김병로, "평화통일과 북한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41] http://www.kncc.or.kr (검색일: 2008년 8월 1일)

A. 화해 통일 위원회

a. 소개: KNCC 주요 사업 위원회 중에 화해 통일 위원회는 1980년대 초, 통일문제연구협의회를 구성, 우리 사회에 평화통일 운동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했다.

b. 사업: 정책협의회, 국제평화통일회의 추진, 평화통일 순회예배, 평화통일 강좌,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교류협력 강화, 북한동포돕기 운동, 민족화해주간(6.25)과 평화통일남북공동기도주일행사(8.10), 평화와 통일관련 성명 발표 등이 있다.

B.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사회개발 에큐메니칼 컨소시엄

a. 소개: 2006년 12월 홍콩에서 발족했다. 북한 식량부족의 문제는 단순히 생산된 농산물의 부족이나 재해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경제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 근거하여 NCCK를 주축으로 WOC, OCA 와 더불어 세계의 교회들은 장기적인 전망을가지고 북한 사회개발에 참여하는 일이 곧 한반도 평화통일과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결성됐다.

b. 사업: 이 컨소시엄을 통해 대북지원 사업내용의 공유, 평가, 전망 등을 함께 나누며, 해외교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사회 개발을 지향하고, 북한 기독교 공동체의 선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증진시키며, 협력과 지원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한기총 – 평화통일과 북한복음화 사업[42]

a. 소개: 1989년 교계 원로목사 10여명의 제창으로 각 교단 증경총회장 및 기관단체 대표들이 함께 회동,

[42] http://www.cck.or.kr (검색일: 2008년 8월 1일)

기도회를 갖고 창설되었다. 2004년 제 15차 총회를 거치면서 62개 교단과 18개 기관, 단체가 가입한 명실공히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이다. 남북의 평화통일과 북한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 통일선교 대학'을 설립운영하여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고, 탈북민 보호와 난민지위 획득을 위해 UN 청원 활동을 벌였고, 국내 정착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b. 사업: 북한 교회 재건운동, 북한 동포 돕기 선교, 자유이주민 정착지원, 남북한 교회선교협력, 탈북 난민 보호 운동, 통일선교 정책 연구, 국내외 통일 선교 대학 운영 등이 있다.

(3) PN4N[43]

a. 소개: 서울신학대학교 북한선교연구소와 서대구성결교회 청년회 북한선교지원팀 "북하나"(북한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가 함께 2001년 4월에 첫 번재 기도일지를 발행함으로 시작하였다. 월간 큐티 '북한 사랑'을 발행하고 있고,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워크로 발전, 그 사역의 폭과 깊이를 더하였다.

b. 사역: 북한과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 밤 11시 정시기도를 통한 집중력 있는 기도와 기도 사역자 발굴 및 월간 큐티 '북한 사랑' 발행

(4) 오도선교회

a. 소개: 오도(한국 전쟁 이전에는 북한이 5개도로 이루어져있었음) 출신 남한 내 목회자들이 단순하게 고향을 돕는데 의의를 두고 시작하였다. 오도 출신 목회자들의 교회에서 회비를 내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북한에 양식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

[43]club.cyworld.com/pn4n (검색일: 2008년 8월 1일)

b. 사역: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밀가루를 북한에 보내고 있는데 쌀은 군량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북한에 밀가루를 60톤급 컨테이너 4개에 실어서 보내고 있다.

(5) 부흥한국[44]

a. 소개: 부흥한국은 남한과 북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복음으로 하나되어 열방을 찬양과 예배로 섬김으로써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b. 사역: 북한중보 기도 모임(목요모임, 사랑의 교회)과 부흥 시리즈 앨범 발매한다.

(6) 기독교 북한선교회[45]

a. 소개: 기독교북한선교회는 북한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선교단체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초교파적 선교단체이다. 1971년부터 김창인, 정석홍 목사, 백인빈 장로등이 북한선교에 헌신을 다짐하고 활동하던 중 1974년 '씨앗선교회'를 발족하여 북한선교의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그후에 뜻을 같이하는 여러 사람이 동참하여 1977년 충현교회에서 북한선교 창립기념대회를 개최하고 북한선교에 앞장서게 되었다.

b. 사역: 격월간 선교지 '북한선교' 지 출간, 방송선교[46], 중보기도 모임[47] , 북한선교대회(매년 10월 개최), 부활절 기간 금식캠페인, 6.25 기념 2대 운동(의약품 보내기와 기도운동), 연말연시 북한동포돕기, 내지선교[48] 등을 복음과 함께 보냄, 학술진흥기금[49],

---

[44] http://revivalkorea.org (검색일: 2008년 8월 1일)

[45] http://www.cmnk.or.kr/ (검색일: 2008년 8월 1일)

[46] 매주 세 번 컨텐츠를 아세아방송전파에 실어 말씀 북한에 송출하고 있다.

[47] 정기적으로 기도모임을 가지며 그 중 하나로 통일전망대기도회가 있다.

[48] 북한내지의 북한동포를 위해 식량, 의약품, 옷, 생필품을 북한에 지원한다.

학술세미나, 출판, 북한물품, 사진자료, video 자료 대여, 북한선교 사랑방[50], www.cmnk.org를 통해 중보기도 네트워크 구성, 인터넷 기자 양성(자원봉사자), 선교현장훈련. 후원회원 모집

(7) 여의도 순복음교회 북한선교회

a. 소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설 기관이 아닌 성도들의 자율적인 선교 사역으로 1995년 창립되어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을 갖고 시작되었다. 북한선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인 선교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북한 사역들을 교회 내외적으로 벌이고 있다.

b. 사역:

i. 2007년 이전의 사역

첫째, 대북 직접 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중국에서 비자를 받고 온 북한인들 혹은 탈북민들을 도우며 북한에 다시 들어갈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북한 내 복음전도사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

둘째, 탈북민들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셋째, 2010년에 완공예정인 조용기 심장병원을 건축 중이며 원목을 보내기로 합의함으로 병원 내 예배처소를 지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를 마련하였다.

넷째, 판문점 및 북한 접경지역 방문 프로그램 등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한다.

다섯째, 교회 내 북한에 마음을 품은 교인들을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프로그램 및 모통이돌 선

---

[49] 통일을 전후한 북한선교 환경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전문가를 후원하고 관련연구를 조성한다.

[50] 특강, 세미나, 교육을 통해 북한선교의 저변을 확대한다.

교사 파송 프로그램에 입학하도록 장려한다.
여섯째, 모퉁이돌에서 하는 성경책을 북한에 보내는 사역을 후원한다.
일곱째, 한국 내 북한 선교 붐 조성을 위해 분기 혹은 반기 별로 북한 사진전과 북한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ii. 2008년 이후의 사역
첫째, 250억이라는 막대한 조용기 심장병원 건축예산으로 인해서 2007년까지의 사업은 우선 정지한 상태이다. 현재 이 병원의 건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으며 병원을 통해서 벌어질 의료 계통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 예로 올해 일본에서 지원을 받아서 1억원어치의 칼슘을 북한에 보냈다.

(8) 열매나눔재단[51]

a. 소개: 2007년 사회 복지 법인 열매나눔재단 설립 인가를 받고 시작이 되었다. 높은뜻숭의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예치금 40억을 갖고 시작한 열매나눔재단은 이 교회가 재단의 모태가 되지만 현재는 독립적인 운영 체제를 갖고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사회적 목적 기업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탈북민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성공적 사례인 희망공장의 설립의 성공으로 2호, 3호 공장들은 교회, 재단, 기업, 보건 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b. 사역
첫째, 사회적 기업으로서 탈북민 자립을 하도록 돕는 사업을 하고 있다. 박스 만드는 공장인 '희망공장'을 2008년 5월에 시작하였고 탈북민 1차 20명, 2차 10명 외 남한 기술자 5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51] http://www.merryyear.org (검색일:2008년 8월 1일)

교육 프로그램과 면접을 통해서 탈북민들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는 이들 가운데서 성공하는 탈북민들이 나와 그들이 남한 사회 내에 좋은 표본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있다.

둘째, 탈북민 고용주를 세우는 사업을 하고 있다. 희망 공장에서 일하는 유예기간을 3년 정도로 두어서 그들 가운데 공장에서 중간 간부로 진급되는 기회들을 갖게 하며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통해서 탈북민이 사장이 되도록 지원하는 대출 사업을 벌인다.

셋째, 탈북 여성 인권운동을 벌여 한국내 탈북 여성 인권의 신장과 그들과 관련된 실질적 사업을 벌이고 있다.

넷째, 정부 탈북민 관련 정책 지원을 벌이고 있다. 한 예로, 남한 정착 도우미를 멘토로 붙이고 같은 탈북민 선배들을 섬김이로 배치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양천과 강서구에서부터 이 정책을 시작할 계획이다.

3) 영적 상황

(1) 외부적인 방해로 인한 침체

오늘날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사역은 침체되어 있다. 대북지원과 같이 공인된 채널을 통한 공식적인 활동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입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북한인권문제와 같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역은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북한은 기독교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정치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2) 북한사역의 제한적 환경과 교회 간 정보공유의 미비

일부 사역만이 활기를 띠고 있는 현 상태에서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놓고 사역을 진행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북한선교는 마치 첩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선교의 은밀한 성격은 교회 간 사역과 선교 전략의 공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에 있어서 연합하지 못하는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총체적인 북한선교 현황과 전략에 대한 부재는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연합사역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 간 연합을 위한 진지한 토의가 필요하다.

2. 북한선교의 방해요소

1) 외부적 방해요인

북한선교에 있어서 외부적인 큰 방해요소는 북한의 정치, 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북한을 둘러싼 한, 중, 일 동아시아 3국 및 미국, 러시아 등 북한과 타국가들과의 관계로 볼 수 있다.

(1) 북한의 정치체계

북한의 정치체제와 근본 사상은 폐쇄사회에서 비롯된 유일 수령체제와 주체사상이다. 북한은 70년대 전인민의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 우상체제를 수립했고 97년 대기근으로 인한 300만의 아사(餓死)를 겪음에도 '체제전복' 등의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 끝 모를 충성심과 외부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은 90년대 말, 김정일의 핵무기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 시켰고 국제사회와의 '벼랑 끝 전략'으로 이어졌고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식의 개혁과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호기를 놓치고 정체와 폐쇄 사회로의 후퇴를 가져왔다. 이러한 북한의 외부세계와의 단절 및 증오심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원조와 선교를 동시에 펼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근접국가인 중국 역시 공산당 일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가 어려움이 있고, 이들의 관계는 한국 전쟁으로 맺어진 혈맹(血盟) 관계로 북한을 직 간접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한국 전쟁으로 비롯된 남북한의 앙금으로 말미암아 남한 사람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또한 남한 사람의 북한내 직접 선교의 불가능은 두 나라 사이의 휴전 상태 및 적대관계로 남한의 국가 보안법 등의 정책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다.

(2) 북한의 경제구조

북한의 경제는 국가정치권력의 직접적 영향하에 관리와 통제를 받는 계획경제체제이며 집단주의 경제이다. 경제 체제 역시 앞서 정치면에서 살펴본 폐쇄사회라는 북한의 특징과 연결된다. 그라나 70, 8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자력갱생의 실패 및 늘어난 부채 및 채무불이행은 90년대 잇달아 일어난 대기근과 아사, 물난리와 맞물려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완전한 실패와 배급의 중단으로 북한 당국의 관리를 벗어난 자생적인 시장경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제한적이나 점진적으로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21세기를 '김정일 세기'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내부적인 개혁과 개방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김정일은 모니터링이 수반되는 원조는 받지 않

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국가들의 북한 상황 개선을 위한 적극적 참여 및 원조를 거부하는 상태이며 이는 중국의 예를 통해 본 개혁 개방과 함께 열리는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이유이다.

2) 내부적 방해요인

북한선교의 내부적인 방해요인으로는 분단 이후 사상적 의미의 다원성을 배척하며 수령 유일체제를 확립한 북한 공산당의 최고 강령인 '주체사상' 과 북한의 폐쇄정책을 들 수 있다.

(1) 철저한 사상교육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 등 김일성, 김정일의 개인 숭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북한의 사회 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 국가적 철학원리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이유는 국제사회 외부환경의 위협을 제거하고 권력 내부 엘리트들의 결속과 단결을 위함이었다.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주체확립을 의미한다. 이 주체확립의 의지와 실천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지배적 통치이념으로 주체사상의 중심명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이며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52]. 주체사상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본주의의 기독교사상을 부정하는 방해요소이다. 이 체제는 수령과 당, 인민을 사회 정치적으로 하나의 생명체로 엮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정치적 변동이 일어나기 힘들다. 또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항일 전통, 사회주의 제도 강화, 유일 체제의 지속화를 추구하며 주체사상을 더 견고히 하여 내부 권력자들만의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회를 건

[52] 네이버백과사전, '주체사상', (검색일: 8월 1일)

설하게 되었다.

(2) 폐쇄 정책

폐쇄 정책은 자력갱생에 기초한 북한의 경제 정책에 따른 부산물인데 이들은 대외 경제 교류를 부차적이며 보완적으로 본다. 그리하여 70년대와 80년대 석유 위기에 따른 누적 채무와 채무 불이행, 자력갱생의 부작용으로 선진 기술 도입의 어려움, 외자 유치 실패, 중공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등으로 북한은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위부 환경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내부 엘리트들의 결속, 단결을 위해 이 시기에 더 견고한 주체사상을 확립하여 폐쇄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어떤 나라도 자유로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북한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 이라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종교, 특히 기독교가 수령 일인 지배 체제의 '주체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북한 권력자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에게 기독교의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 물론, 대외활동 재개를 위해 종교를 개방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중국의 삼자교회와 같은 "보여주기식" 교회이며, 북한 당국은 지하교회 및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3. 북한선교의 성과와 한계점

1)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

'교육'과 '기도운동'은 북한 선교에 있어서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교육과 국가의 반공사상의 영향으로 한국사회에서

는 통일에 대한 염원보다는 우려가 많고 북한을 동포보다는 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무조건적 퍼주기' 논란은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이질감을 늘 마음 속에 품게 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 사정과 북한인들의 생활 및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인권탄압 실태를 한국 사회에 알리고 그릇된 북한관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같은 마음과 눈으로 북한선교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한국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운동을 시작할 때 효과적인 사역들의 방향 제시와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중구난방적인 북한선교에 있어서 다각적인 사역의 확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 기도, 이 둘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이는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이 될 것이다.

2) 성공사례

(1) 기존 선교사의 선교전략

북한은 폐쇄사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직·간접적 선교 전략이 필요하며 각 사역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그 사역의 처해진 환경을 겪어봐야만 이야기 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은 그릇된 일이다. 이를 위해 치밀한 북한 선교 전략이 필요한데 현재 실행 되고 있는 실제 전략들을 살펴보자. 직접적인 방법은 북한을 방문 혹은 거주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NGO 혹은 구호활동, 화교 혹은 조선족을 통해서 북한 내부에 직접 들어가 북한을 복음화 시키는 것이나 이런 직접 선교는 북한이 공산주의국가이며 폐쇄사회임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제 3국에서 풍선 전단지 날리기, 방송 및 라디오 전달, 성경배달 등을 통해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

a. 직접 선교전략

i. 탈북자들을 복음으로 훈련하여 본국 송환

1990년 중반 이후, 식량난으로 인해 생계형 탈북자들이 급증하게 되어 북한사역이 한 층 확장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탈북자들을 복음으로 훈련한 후 북한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다. 물론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출국허가증을 주민들에게 내주어 중국에 있는 친지들을 만나고 올 수 있게 하여 현재는 생계형 탈북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추세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생계형 탈북자들 보다는 허가증을 갖고 중국으로 나오는 북한 동포들을 복음으로 훈련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사역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ii. 북한 내 학교 및 의료 시설 기반 인프라 구축

한국 교계는 북한 내 시설 및 학교 건축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하여 교계들 연합으로 사역을 벌이고 있다. 그 예로 소망교회 평양과기대 건축 및 여의도 순복음교회 북한선교회의 조용기 심장병원 건축이다. 각각 450억, 250억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평양과기대는 연변과기대의 예처럼 수업과 수업 이후, 교수와의 결연관계를 통해 북한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으로 열겠다는 취지이다. 조용기 심장병원은 우선 북한의 심장병 아이들을 돕는 것이나 원목과 교회를 병원 내에 두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이들 역시 교회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나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 지켜보며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iii. 지하교회 건립 및 후원

UN 탈북난민 1호로 인정받아 화제가 되었던 전 북

한과학원 연구원 이민복 선교사는 현재 선교사로 남한에서 활동 중인데 2006년 TIME 지 기자와 동행하여 지하교회의 실상을 현지 북한 주민들과 생생하게 증언했다. 또한 모퉁이돌은 현재까지 300여개의 지하교회를 북한 내에 설립했고, 후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 이름과 장소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이처럼 지하교회는 북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지하교회 교인들을 돕는 것이 선교의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탈북자 선교자 및 실지조-중 접경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선교의 핵심이 김정일 정권을 전혀 돕지 않고 이 정권에 탄압받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돕는 것이라 주장한다. 지하교회 교인들을 돕는 방법으로는 탈북자들의 북한 내 가족들을 통해서 후원하는 것과 조선족을 통해서 후원하고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세우는 방식이다.

b. 간접 선교전략

i. 성경배달

모퉁이돌의 사역을 시초로 성경배달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출입허가증을 받고 나온 북한 주민들이나 조선족 및 화교들, 북한을 방문하는 교포들을 통하여 전달된다. 또한 우편물로도 전달된다. 또한 이제는 라디오를 통한 전파 사역과 mp3, 전자사전 등에 들어 있는 성경 말씀 보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 전달 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ii. 풍선 전단지

현재 이민복선교사가 대표로 있는 기독탈북인연합회와 모퉁이돌에서는 풍선 안에 북한의 폐쇄사회를 뒤흔드는 내용과 말씀을 북한 식 표현으로 인쇄하고 바닷가에 빠지더라도 젖지 않는 비닐로 제작한 삐라

를 북풍에 실어 날리고 있다. 수소가스를 이용해 비닐로 큰 풍선을 만들어 단, 중, 장거리의 3단계로 날라가 북한에 떨어지는데 북한에서 이 삐라 때문에 한국 정부에 약 20차례나 항의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치명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iii. **제 3국 유랑 탈북민 지원 사역**

두리하나 선교회 및 모퉁이돌과 영락교회, 개별 선교단체 등의 한국 교계에서는 제 3국, 특히 중국에서 유랑하는 탈북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발 즉시 북송 되어 공개 처형 및 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이들을 돕기 위해 한국 교계는 조-중 접경 지역에 신학교 및 처소 교회를 세워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남한으로 보내는 일 역시 감당하고 있다. 또한 부모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배회하는 꽃제비들 위한 고아원 및 결연 관계 맺는 사역 역시 남한과 조-중 국경 지역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 중이다.

(2) 기존 성공 전략 (상황화, 총체적 선교 등)

북한은 철저한 폐쇄사회이므로 북한선교 역시 철저하게 보안이 필요하다. 풍선 전단지 날리는 것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항의와 많은 수의 탈북자가 남한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볼 때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북한 선교의 성공 사례는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 밖에 없다. 사례 분석문서화 작업 및 영상 촬영의 공개 역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고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단체들이 있으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리하여 이 파트는 다음 기수에 리서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보류한다.

3) 기존선교활동의 한계점

(1) 남북간 문화 및 인식 차이

한 실무자는 탈북민들을 '말은 통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즉 언어는 통하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서로의 상식과 문화가 달라 남북한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서로 상처를 받는다. 현재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 대다수는 남한사람들과의 문화 및 인식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 중 하나는 '이질감'이다. 남한사람들이 탈북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탈북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문화의 차이로 인한 탈북민들의 어려움은 그들이 살았던 북한의 체제와 문화의 영향이 매우 크다. 폐쇄적인 체제 아래 생활해 왔던 그들에게는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수동적인 배급체제는 적응능력과 의지가 약해 쉽게 자존심에 상처를 잘 받는 요인이 된다. 또한 60년간의 분단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인 골이 깊기 때문에 남한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 금을 그어놓고 살다시피 한다. 한 예로 북한사람들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신을 한국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한국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는 북한사람이라고 소개한다고 한다.

대부분 이러한 문화 및 인식차이는 탈북민들의 사회적 부적응 현상의 원인이 되며 취업난으로 이어지게 된다. 많은 탈북민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유리하면서도 설사 직업을 얻는다 하더라도 적응하지 못해 쉽게 그만둔다.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그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독립이 쉽지 않다.

(2) 한국교회 성도들의 인식부재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전혀 관심

이 없는 경우 또한 북한선교의 내부적 방해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 진심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 마음과 북한선교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사역자들과 교인들 간의 깊은 골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교인들의 저조한 참여도를 낳게 되고 결국에는 총체적인 북한선교가 타격을 받게 된다. 성도들의 인식이 교회 사역을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북한선교는 하나의 공략으로 밖에 남지 않는다.

(3) 북한의 체제의 생리에 대한 이해부족

오늘날 북한선교가 한국교회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트랜드화 되어가고 있다. 이미 수도권 지역의 대형교회들은 북한선교에 뛰어들었으며 교회의 예산 중 일부분을 북한선교를 위해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대북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부 북한사역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들은 한국교회가 북한 체제의 생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53].

또한 모퉁이돌선교회와 그 외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경보급이나 탈북자들을 양육하여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분명 효과적인 사역이지만 이제는 보다 나은 선교방법이 도출되어야 한다. 성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 연좌제로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행인 것을 감안하면 좀 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한 말씀 전달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교회 내부적인 의견충돌

[53] 위 제언은 주로 북한의 현실을 경험한 실무자들, 탈북민 또는 이북출신 사역자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북한 체제의 생리를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부분 교회의 중요한 정책들은 담당 목사의 성향에 따라 사역구조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교회의 분위기에 좌우되기도 한다. 목회자가 북한선교에 뜻이 있어 교회에서 대북지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해도 보수적인 교회의 경우[54], 요직에 있는 재직들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설사 북한선교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그 규모에 제한이 있게 되며 내부적으로는 계속된 의견충돌에 시달리게 된다.

(5) 대북지원의 정책적 한계점

교회가 내부적으로 대북지원에 찬성하였다 할지라도 교역자들은 대북지원 방법들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원물품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현금보다는 직접적으로 소모될 수 있는 양식이나 약품이 비중을 차지하며 지원물품들이 북한의 기득권 세력과 부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원대상지역에 제한을 두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의 대북지원 사역은 민간단체나 국제단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대북지원단체들이 겪는 대북지원의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겪는다. 그러나 교회가 직접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55]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6) 연합하지 못함

현재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매우 많지만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연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매우 중구난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 차례 교회 간

---

[54] 해당 교회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 주로 교회 요직들이 북한정권에 대해 반감이 강하거나 이북출신인 경우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다.

[55] 지원된 물품이 적재적소에 보급되는지를 알기 위해 감독관을 보내어 물품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

연합사역을 추진했지만 교단 내에서 연합사역을 진행하기도 매우 힘들다고 한다.

한 실무자는 이러한 연합의 문제에 대해 각 교회마다 원칙이 다르고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 또한 교회마다 사역의 초점이 제각각 이기 때문에 북한선교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지만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중점을 두는 사역이 달라 쉽게 연합하기가 힘들다고 교회간 연합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선교에 있어서 한국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다. 현재 북한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 간 보이지 않게 입장 차이로 서로의 사역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기존에 사역을 진행해 왔던 일부 교회들이 북한사역을 처음 시작하려는 교회들에게 기득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교회간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이런 경우 협력하는 교회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기며 있으며 지속적인 대북사역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

(7) 성공적인 모범사례의 부재

북한선교가 시작된 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고 현재 많은 교회들이 북한선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없다. 표준화 된 모델이 없는 현실은 한국교회의 북한선교가 같이 연합하기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킨다.

한국교회가 연합사역을 펼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관적인 기준점이 필요한 시기이며 적절한 모델이 등장하여 북한사역을 일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VI. 한국교회 북한선교전략 제언

1. 선교전략 기본방향 제시

현재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사역의 특징에 따라 크게 앞문선교, 뒷문선교, 옆문선교, 윗문선교, 그리고 영문선교 5개의 문을 통한 선교로 나뉘고 있다. 각각의 문 선교는 다시 세분화 되어 구체적인 연구와 현지사역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역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선교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남한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며 통일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감해질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북한선교 전략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새로운 전략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선교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북한선교는 우선적으로 선교 대상과 목적을 재정립하고 선교방법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북한 정권에 대한 선교인지 북한 인민, 탈북자, 지하 교인에 대한 선교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그 대상에 맞는 선교방법론을 얘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정립된 선교방안에 대해 한국교회들은 각 교회의 상황과 정서에 맞게 적용하여 북한선교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선교에 대해 본 조사팀은 현재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의 대상에 대한 선교전략, 향후 기존사역의 진행 방향성과 한계점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북한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북한선교를 위해 제언할 것이다. 이는 제시된 현황만으로는 북한선교의 방향성에 대해 이해하기란 어려울뿐더러 그저 현황 보고의 차원에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제시된 북한선교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대상별 전략 제언

북한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교의 대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북한선교라는 방대한 주제에 대한 사역의 대상을 장소에 따라 크게 세 가지(북한, 국내, 국외)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선교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역의 대상은 크게 북한 인민, 국내 탈북자, 그리고 국외 탈북자로 구분하였다.

1) 북한 인민

현재 북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전략으로는 직간접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교회나 대북 NGO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복음전달, '디아코니아'[56]와 같은 사역이다. 또한 이와는 다르게 중국 등지에서 복음으로 양육된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사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복음 풍선과 같은 윗문선교를 통해 북한의 인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인민들에 대한 선교는 중국 조선족이나 재외교포를 통한 사역보다도 북한의 문화와 정서에 익숙한 탈북자들을 통한 복음전달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57]. 북한 인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남한에 오기까지 수많은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된 그들이 북한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기독탈북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음 풍선의 경우 전단지에는 북한사람들의 정서에 익숙한 어휘와 내용이 담겨있어 효과적인 내용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에 성경을 보급하는 몇몇 사역단체의 경우 북한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기존의 한글성경보다는 읽기 쉬운 북한어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북한

---

[56] 봉사, 섬김을 뜻하는 히브리어이다.

[57] 기독북한인협회 이민복 대표의 제언에서 발췌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 정서를 반영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국내 사역자들이 탈북인 기독교 리더십과 함께 진행해 나아가야 할 사역들이다.

2) 국내 탈북자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건너 온 탈북자들은 약 13,700명 정도로 매년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잡은 탈북자 문화는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 중 대다수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기독교 문화가 북한의 체제와 상당히 유사할 뿐더러 탈북 과정에서 많은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들은 기독교를 믿지만 온전한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체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단지 수령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체해 놓은 것을 빼고는 그들에게는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삶이 변화하지 않는 탈북자들이 많으며 복음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일쑤라고 한다.

많은 사역자들이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탈북자들이베풂 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시 여기고 감사하지 않아 사역에 보람을 느끼기 힘들고 쉽게 지쳐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라는 단어가 오직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만 허락된 북한사회에서 살다 온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도 남한문화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감사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들은 오히려 북한과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반감과 인식의 차이는 교회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쉽게 풀어지지 않으며 국내 탈북자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물질이나 각종 혜택이 아니라 다만 오래 참고 인내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지

속적인 사랑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내 탈북자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주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국내 탈북자 사역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국외 탈북자

국외 탈북자들은 보통 국제문제와 많이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에 의해 난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이나 몽골 등의 제 3국에서 살고 있으며 정부의 색출을 피해 숨어다니고 있다. 최근에는 국외 탈북자들이 제 3국 난민수용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영국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사는 경우도 있다.

국외 탈북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교회와의 협력일 것이다. 협력 사역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현지 교회와 마인드를 공유하고 같은 관점으로 탈북자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 예로 이미 기독교 복음이 정체성으로 자리잡은 영국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겠지만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처럼 국제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국외 탈북자들에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달하기란 그 국가의 환경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지 사역자와 깊은 친분을 쌓는것, 그리고 현지의 기독교 풍토를 이해하고 사역에 임하는 것이 향후 국외 탈북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국외 탈북자 선교는 또한 탈북자 인권문제, 국제난민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탈북자 인권문제는 결국 북한뿐만이 아닌 탈북자들이 의탁하고 있는 국가의 인권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의 총체적인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외 탈북자 선교는 '인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도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자칫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

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각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과 종교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탈북자 선교에 대한 접근방법이 차별화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선교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주제는 차후 리서치 주제로 다음 기수에서 상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보류한다.

3. 북한선교 현황에 대한 제언

앞서 명시된 다섯 개의 문을 통한 기존의 북한선교 선교전략에 대해 개선방안과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 앞문선교 전략 제언

대북지원은 북한과의 공식적인 협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아직까지는 북한당국과 한국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통일 후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도 대북지원은 필요한 과정이며 간접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앞문선교의 사역 초점은 한국교회와 북한교회의 재건, 그리고 북한의 복음화이며 이를 위해 북한 내 인프라 구축, 교회재건, 그리고 대북 NGO와의 협력사업을 통한 사역의 능률 개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 복음의 인프라 구축

북한의 체계적인 복음화를 위해서는 복음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현지에서 복음의 허브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프라로서는 병원과 같은 사회복지기관이나 대학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이 입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개교 예정인 평양과기대는 교수 1인당 각 학년마다 학생 한 명씩을 담당하는 멘토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멘토시스템 하에서 담당교수가 학생

들과 상담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 병원건립사업은 복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병원의 의사들과 직원들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게 되는 북한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와 병원을 통한 선교는 복음 전달보다는 디아코니아를 통한 방법이 현재까지는 유력하다. 우선적으로 북한사람들이 먼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토양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교나 병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당국에서 내부 감시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사역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직접적인 복음보다는 간접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북한의 칠골교회, 봉수교회를 통한 선교

현재 북한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는 목사와 예배에 참여하는 신도 대부분은 출신성분이 좋고 철저한 사상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가장 효율적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성경과 찬송가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져있거나 변형되어 있다. 두 교회는 북한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관광 일정 중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많이 통제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이 조선그리스도연맹을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상반되는 두 입장이 있다. 두 교회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은 북한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두 교회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 교회들이 이를 오인하여 칠골교회와 봉수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은 두 교회에 대한 지원

을 통해 북한에 선교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방법이라고 제언하며,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교회이지만 찬양이 불려지며 성경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어느 의견도 절대적으로 옳지 못하기에 각 방법의 단점을 상호보완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교회 건립과 보수, 유지에 필요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북한당국에 요구에 순응하기보다는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복음 전파 방법이 필요하다.

북한 교회는 북한당국이 종교말살정책을 펴면서 북한에 남아있던 기독교적 세계관과 내용들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해당 교회 매뉴얼을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한국의 몇몇 사역자들에게 매뉴얼(성경, 찬송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북한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교정되겠지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위해 북한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쓰고 그들의 정서에 맞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될 수 있도록 이 사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대북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역

현재 대북 물품지원, 공장건립지원, 그리고 의료지원의 경우 교회차원의 접근보다는 기독민간단체(NGO포함)을 통합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모체가 대북지원을 위해 사역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의 대북 NGO들과 협력하여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58].

기독 대북 NGO들의 경우 대부분은 후원을 통해 모금

[58]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기수 리서치 보고서인 『선교지역연구 제3권 1호』에 명시되어 있다.

된 예산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의 요구에 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적위주의 사업이 되고 그 밖에 여러가지 제도적 한계점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사역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양하고 직접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재와 재정문제가 심각한 대북 NGO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겠다. 한 예로 교회의 예산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그 자본을 토대로 개별적인 대북 NGO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사역이 활발해졌다고 한다. 또한 교회의 예산을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인들의 헌금을 헛되이 사용할 수 없어 더욱 사역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한다[59].

이와는 다르게 교회에서 NGO단체를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대북지원을 돕고 NGO단체는 현지사업을 정밀하게 촬영한 자료를 교회에 보고하는 상호보완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교회와 대북 NGO단체가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북한 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2) 뒷문선교 전략 제언

현재 뒷문선교 사역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정세 속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역이기 때문에 중국당국에 있다. 사람이 목숨이 걸린 사역이므로 가장 치열하고 영적 전쟁이 심한 분야로 신중함과 지혜,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많이 필요하다. 사역의 주된 목적은 직접적인 북한의 복음화이며 탈북자들의 구출 및 양육이다.

---

[59] 대표적인 사례로 높은뜻숭의교회의 열매나눔재단이 있다.

(1) 처소교회 사역

현재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처소교회들은 대부분 중국 내 조선족 교회를 빌리거나, 지역복지관이나 그 외의 형태를 띠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역은 탈북자구출, 양육 등과 같은 것이며 인권유린의 대상인 탈북여성을 구출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는 중국의 삼자교회와 연계하여 신학교를 세워 비밀리에 탈북자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처소교회사역은 조선족 교회에서 제3탈북자들을 구출하여 보호하며 양육하던 사역들이 중국 공안에 발각되어 연계되어 있던 다른 사역자들까지 붙잡혔던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중국의 공산정권 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처소교회 사역은 국내 한국교회 간 긴밀한 연대가 지속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자 때문에 사역지에서 나와 있는 동안 교회에 사역내용을 공유하고 선교보고를 하지만 사역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한국교회들과 마인드가 공유되어 있지 않아 양육된 탈북자들을 남한에 보내도 처소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유지되어지지 않는다.

현지에서 겪는 위험요소 때문에 처소교회 사역은 소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다수의 한국교회들은 기도와 물질로 사역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소수의 사역으로 양육되어 세워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책임져 주는 것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처소교회 사역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 내에서 사역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며 현지 사역자, 교회와의 계속적인 교류 및 협력이 요구된다[60]. 직접적인 교류가 없어도 선교지원과 선교보고를 통한 현지와 한국교회의 긴밀한 연대유지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

[60] "소수 사역, 다수 중보", 한민교회 정교진 선교사의 제언이다

한국교회가 중국 등지의 브로커들과 협력하여 탈북자 구출 및 보호 사역을 진행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브로커들을 협력선교사로 파송하여 여러가지 지원사역을 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북한선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61]. 무엇보다 사역에 있어서 신뢰성이 중요하며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논제이다.

(2) 북한 꽃제비 사역

꽃제비 사역은 북한의 꽃제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으로 조중접경 지역의 꽃제비들을 구출하여 보호, 양육한다. 북한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사역과는 다르게 북한사회에서 소외된 10대를 상대로 한 사역이라는 점에서 꽃제비 사역은 주목할 만하다. 청장년층의 경우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문제로 인해 사역에 장애가 많다. 또한 사상교육으로 인해 굳어진 사고 때문에 이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교육체계가 이미 무너진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벗어나 거리를 유리하고 있는 꽃제비들에게는 남겨진 가족도 얽매인 사상도 없다. 이러한 꽃제비들을 구출하여 한국교회가 양육한다면 통일을 대비할 세대를 보다 쉽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62].

3) 옆문선교 전략 제언

위 사역은 국제사회와 세계 언론, 인권 단체들을 동원하는 협력사역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에 국제적인 압박을 가해 북한 내 인권유린실태를 개선시키는 사역을 포함한다. 위 주제에 대한 정보는 지난 기수 보고서에서 언급한

---

[61]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비밀리에 사역중인 선교사들이거나 중국 조선족 사람으로 이 일을 업으로 삼아 돈을 버는 자들이다. 브로커들은 돈을 받고 북한 사람을 북한, 중국 등지에서 구출하여 대한민국으로 송국하는 일을 한다. 목적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며 자세한 사역내용이 공유되어지지 않고 있다.

[62] 꽃제비 사역은 한국침례교북한선교통일포럼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력 사업으로 꽃제비들을 대상으로 구호활동과 양육을 책임지는 “우리집 사역”을 시행하고 있다.

대북인권단체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한 제언만 언급하기로 한다.

(1) 북한인권 컨퍼런스

국내외 인권단체에서는 탈북자 및 북한 내 인권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 이 모임에서는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제3국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발족하여 향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논의한다.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의 북한선교에 대한 인식수준은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을 제외하곤 매우 낮다고 한다. 북한선교는 고집이 세고 열정적이고 민족적인 성향이 강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사역이 아닌 전 한국교회의 과제인 만큼 한국교회 성도들 또한 잘 알아야한다. 따라서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북한과 탈북자들의 실상에 대해 알려 인식수준을 높이고 북한선교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인권개선 방안

북한인권시민연합 자료 참고 – 인권(복음과 밀접, 토대 작업)

국내 대북인권단체들 중에서는 북한 내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여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공식적인 문서나 사과문 등을 검증하여 허위를 발견하고 시정하는 사역 또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당국에 인권문제 개선을 요구하게 되며 북한은 이 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일부 인권문제를 개선하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은 복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북한의 인권개선은 북한 내 인권 회복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교회 또한 국제사회 및 국내외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보다 나은 북한선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4) 윗문선교 전략 제언

윗문선교는 다른 사역보다 안전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역이지만 정확한 영향력과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북한 인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신앙상태가 유지되는가의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1) 성경보급

북한에 성경을 들여 보내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척 상반적이다. 대부분 북한 출신 탈북자 사역자들은 성경책을 북한에 보내고 신학교를 중국 등지에 만들어 훈련된 탈북자들에게 성경을 주어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다. 복음을 듣고 훈련으로 무장되어서 동포애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들을 막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수 있다고 한다. 북한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발각되면 무조건 처형 대상이며 감시를 피했더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킬 경우 본인은 물론 일가족 모두가 몰살 또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무지한 북한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깨닫기란 쉽지 않고,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선교전략보다는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이나 탈북자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차차 기독교를 알게 하는 방법과 라디오를 보급하는 방법이 낫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부분적이더라도 성경말씀을 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면 그 사람에 의한 엄

청난 영향력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한 예로 김정일 유일체제인 북한사회에서 성경은 폭탄과도 같은데 계속해서 보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에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모퉁이돌선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발전한 나라일수록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63]. 이러한 북한 인민들의 관심과 복음을 접한 탈북자와 사역자들을 통해 북한에 성경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상반된 견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경보급 사역은 그 동기와 의의에 있어서 타당하지만 보다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 분명 성경은 계속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발각되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성경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고민해보아야 한다. 한 눈에 보기도 발각되기 쉬운 성경을 아무리 숨겨본다 한들 영화 '크로싱'에서와 같이 이미 북한 당국은 복음의 차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무전략, 무대포 사역은 지양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성경보급의 본 목적은 유지되되 보다 효과적이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성경보급과 같은 사역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첩보와 같기 때문에 그만큼 참신하고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국내 탈북인 사역자들과 소통하며 북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풍선 전단지

---

[63] "북한서 기독교인 102명 발각돼 순교", 『크리스천투데이 2008-07-24 http://www.christiantoday.co.kr (검색일: 8월 1일)

풍선 전단지 사역은 15kg 정도의 비닐 풍선에 복음 전단지를 부착해서 북한내륙으로 띄워보내는 사역이다. 무게가 다른 전단지 묶음을 풍선에 부착하여 평안도까지 띄워보내는 것으로 당일 풍향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단지의 영향력은 상당히 방대하여 북한당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사역에 제재를 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간접적인 제재를 무시할 수 없기에 이 사역은 개인 또는 단체의 형태로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으며 물자와 인력, 그리고 기술부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존의 제한요소들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기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역장과 사역자 자택의 거리가 멀고 풍선 재료와 가스 연료를 쉽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베이스 캠프를 구하는 일이다. 또한 사역 인력이 적다는 단점은 인력을 늘리거나 기존 인력을 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동반하는 것이다. 특히 풍향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풍선 사역의 경우 이런 것들을 보완할 만한 재료의 개발이라거나 지역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풍선 전단지 사역은 현 한국교회와 사역단체들이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 한국교회가 사역자들과 협력[64]하여 기존의 제한요소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사역장을 제공한다면 사역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또한 사역자들은 사역 내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해당교회에 보고하고 동역자를 동원한다면 인력부족으로 오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64] 기독탈북인연합의 이민복 대표는 한국교회에서 직접 사역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기존의 사역자들을 협력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사역 현장과 한국교회가 연결되어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5) 영문선교 전략 제언

앞문선교와 더북어 현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역이다. 북한선교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 사역으로 새터민 사역과 북한중보기도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4개의 문 사역에 비교해서는 후방사역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북한선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 새터민사역

새터민사역을 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의 인식과 정서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이해부족이다. 사역 중에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 서로의 문제를 통해 새터민들과 우리 간의 작은 통일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은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사역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이끌어 내셔서 북한의 문을 열기 전 우리에게 연합과 통일을 위해 먼저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역이지만 계속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새터민 사역은 의무가 아닌 순수한 동기로 새터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곁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우선적으로 교인들에게 탈북자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역을 위해 헌신할 자들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원 후에는 새터민을 이해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새터민정착지원과 양육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동일한 기준(standard)을 세워 일관성 있는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북한의 사회적, 문화적인 체제의 다름으로 인해 탈북자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 향후 새터민 사역은 탈북자들의 삶의 질을 신장시키고 그들 중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통일 후 한국의 새터민들이 북한의 총체적인 회복을 이끌 세대로서 바로 세워지려면 우선 '다름'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새터민들과 작은 통일을 이루는 동시에 사회적 리더십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나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을 위한 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잦은 실패를 거듭하는 북한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은 중보기도이다. 꾸준한 기도의 힘이 인내의 원천이 되며 여러 사람들이 합심하여 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북한선교가 이뤄져야 한다. 북한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중보기도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도모임이 대부분 해당 교회, 해당 부서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과 북한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한국교회에서 이뤄져야 하며 교회 사역의 일부로서가 아닌 전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

북한중보기도는 북한과 남한에 있는 사단의 영을 묶는 기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기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기도주제로 나아가야 하겠다.

북한을 위한 기도는 크게 십계명, 십자가, 그리고 영적 전쟁 세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겠다[65]. 한국교회는 십계명을 통해 스스로의 죄악을 돌이키고, 경건함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 한국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쟁에 대한 공부와 사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단의 세력을

[65] 2008년 7월 14~17일 서울 서대문 바위샘교회에서 열린 '북한선교학교'에서 한동대학교 김미영 교수가 강의한 내용에서 발췌했다.

대적하고 묶는 기도가 필요하다.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단이 나의 삶에서 어떠한 부분을 공격하는지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서로 사랑하며 죄악의 전염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북한의 십계명에 대한 죄까지 짊어지고 대신 자복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영적전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약시대 남북포로 시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며 애통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또한 북한과 한국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4. 기타 제언

대상별 전략제언과 선교현황에 대한 전략제언에서 다루지 못한 선교전략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교회가 선결해야 할 과제인 교회 간, 타 단체와의 연합의 문제에 대해 선교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한국교회의 연합

(1) 한국교회 간 연합

북한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연합과 연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현재까지는 한국교회들 사이에서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구난방식으로 북한선교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사역 안에서 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하여 교회가 내부적인 알력과 다툼으로 분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개별적인 교회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하나의 협의체가 되어 움직여야 하며 사역의 통일에 앞서 교회 간 통일과 연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부르심과 소명이 있지만 복음 안의 조화를 위해 타 교회와 북한사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교회의 사정에 맞게 사역을 연합하여 행한다면 보다 능률적으로 북한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합사역에 앞서 북한선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들의 범례를 나누고 청소년 탈북 대학생 지원과 같은 사안별 선교전략과 세부적인 사역에 있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신뢰성, 재정적 투명성을 두루 갖춘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사역자들이 모여 북한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본을 만들어 '너도 나도 선교'가 아닌 북한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과 선교를 제시하여야 한다.

북한선교라는 거대한 사역을 여러 한국교회들이 책임을 나누어 감당하는 것,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으며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진보와 보수적인 상반된 입장에 선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친 사람들이 연합해야 한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2) 교회와 연구단체, 복지단체, 지역사회, 기업, 정부와의 협력

향후 북한선교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이들을 통해 보완된다면 보다 능률적이고 총체적인 사역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와 연구단체 간의 협력은 현재 북한에 대한 연구와 현지 사역 간에 빚어지는 괴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와 연계되어 현지 사역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현지 사역자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현지 사역자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사역 현황을 연구단체에 알려 즉각적이고 정확한 선교전략이 연구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빈민, 재외국민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탈북자 문제는 국내 사회복지계의 불모지라고도 불릴 만큼 많은 어려움을 빚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한국교회가 사회복지단체와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력사업을 통해 보다 쉽고 구체적인 사역이 가능하겠다. 현재 복지단체는 복지단체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탈북자 정착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탈북자 정착지원과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 한편 복지단체는 탈북자들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복지계가 협력하여 탈북자들을 위한 복지체계를 구성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역전수와 분업화를 이룰 수 있겠다. 복지단체에서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도와 삶의 질을 신장시키고 한국교회에서는 헌금을 통한 복지단체 지원과 탈북자 양육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와 지역단체간 협력방안은 새터민 사역에 매우 중요하다. 탈북자들의 정착과 생활은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서 탈북자 문제는 지역사회의 문제와도 같이 자리잡게 되었다. 탈북자들의 온전한 한국사회 정착은 복지계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벅찬 감이 많다. 한국의 사회 복지계가 감당할 탈북자 사역은 점차적으로 지역사회나 단체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지역단체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교회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잘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역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일부분인 교인들이 동원과 헌신을 통해 탈북자 가정을 돌보고 지원하는 사역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기업과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현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한국교회가 기업과 협력하여 사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일반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소외계층을 고용하여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탈북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터민들은 일반적인 기업에 취직하기 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될 것이다. 엄격한 입사과정과 사내 실적에 따른 상벌을 통해 새터민들이 한국사회의 체제와 기업환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대한민국 내 새터민 기업인 양성을 지원하고 고용인력이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과 연계되어 취업루트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터민들의 창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을 통해 탈북자들의 창업 및 진로의 모색을 도울 수 있겠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이는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북지원과 북한인권활동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그 활동범위가 달라지며 때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북한문제에 한해 한국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협력관계를 통해 북한선교의 많은 문들이 열릴 것이다. 정부를 통한 북한선교는 국가정책의 개정, 국가 지원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겠다. 한편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북한인권운동, 6.25 전쟁납북자송환운동과 같은 영역을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의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연합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며 북한 문제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통일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교회의 북한사역 연대

(1) 한국교회 간 북한사역정보공유

북한선교에 있어서 한국교회들의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분위기는 정확한 선교현황 파악과 정보교류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의 북한사역이 과도기적인 과정을 지나고 있고 북핵문제 등 각종 국제적 문제들 때문에 사역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 정보교류의 위축은 한국교회 전반적인 북한선교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교회간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북한선교의 영역 안에서 교회들 간의 분열과 기득권층 형성을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중구난방적인 선교 또한 사역공유와 정보교류에서 기인하며 한국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한국교회 간 북한선교에 대한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북한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 및 단체들의 사역공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북한선교에 대한 전략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단체들은 노하우를 공개하고, 단체들간의 정보공유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북한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 및 단체 간 정보교류와 연합뿐만 아니라 북한선교를 시작하고자 하는 교회 및 단체들에게 사역을 전수하고 기존의 사역을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역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많은 교회들이 쉽게 북한선교에 동참하고 기존의 사역을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66].

(2) 북한사역 네트워크

---

[66] 현재 북한선교자료 공유에 대해서 영락교회의 사역공유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10년 동안의 사역내용들을 교회 내 하드디스크에 보관·저장하고 있으며 북한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자료가 필요한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정보교류만으로는 한국교회 내외부적인 북한선교 연합이 이뤄질 수 없다. 정보교류와 더불어 사역자들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북한선교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북한선교현황과 사역자료의 공유에 이어 한국교회의 북한사역 간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각각의 특성을 배제하고 북한선교사역을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북한중보기도, 북한선교교육, 탈북자 양육, 대북지원 등과 같은 채널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역한다면 북한선교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그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혹은 교회를 세워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에스더기도운동, 기도 24^365, PN4N 중보기도네트워크, NK 100일 중보기도연합 등 많은 북한중보기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초교파적인 중보기도운동에 교인 개별적으로, 혹은 교회의 북한사역을 놓고 기도제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 각 교회의 북한중보기도모임이 연합하고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북한선교의 큰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선교교육은 현재 한기총의 통일선교대학이나 교회 개별적인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북한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사역에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 실무자 또는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현지 사역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북한선교에 마음이 있는 교인들을 동원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또 한 명의 사역자를 세워야 하겠다. 단지 현장 선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북한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다각적인 북한선교 접근

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총체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탈북자들을 총체적인 사회적 리더로 세울 인력을 양산하고 지속적인 중보와 후원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탈북자 양육사역은 탈북자들을 복음으로 단련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세심한 보살핌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각 교회별로 양육 방식이 다르고 상황이 제각각이지만 탈북자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접검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지 실무자와 양육 과정을 거친 1세대 탈북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그동안의 노하우와 사역을 토대로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양육에 있어서 이미 양육과정을 거친 선배 탈북자들을 도우미로 세워 섬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낯선 한국사회에서 같은 탈북자들의 섬김을 통해 보다 편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중구난방적인 한국교회의 대북지원 창구를 통합시키는 것은 향후 대북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대북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규모에 대한 항목을 나누고 그에 맞는 사역들을 정립함으로 기존의 창구를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유진벨이라는 대북 NGO를 통해 대북지원사역을 진행할 수 있겠다. 또한 모든 대북지원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대북지원의 방해요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발하여 할 것이다.

Ⅶ. 나가는 말

촛불시위와 금강산피격사태로 한국사회는 오랜 침묵을 깨게 되었다. 남북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6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남한 사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아왔다. 하지만 주변 국가의 정세에 따라 그 형태와 방법이 바뀌어왔던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오늘날 그 사역들을 재점검하고 첫 마음을 되새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북한선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한국교회에게 있어서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열방선교를 감당하기에 앞서 극복해야 할 고지이다.

통일에 앞서 하나님은 '탈북자'라는 귀한 영혼들을 통해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사이에 작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셨다. 그러나 수 년에 걸친 한국교회의 탈북자 사역은 아직까지도 마찰을 빚고 있으며 북한 사람에 의한 효과적인 북한선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가장 주된 원인은 한국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탈북자들을 끝까지 책임질 만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며 주님이 들어 쓰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회개를 통한 부흥운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나라와 교회를 온전케 할 것이며 탈북자 사역과 북한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불을 댕기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무전략 무대포 선교로 인한 많은 손실을 빚고 있다. 특히 북한선교는 국가의 정권과 이념적 대립을 고려해야 하는 사역으로 주님의 지혜와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조사팀은 지금까지의 북한선교 역사와 사역현황들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선교전략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선교전략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의 선교현황을 재점검하고 기존의 방해요소와 한계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사역을 하도록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현지 실무자와 연구단체, 그리고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를 이어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기관 또는 단체가 생겨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온전한 연합 아래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

선교전략을 구상하고 사역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사단과의 영적전쟁 가운데 더 많은 기도와 성도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모든 영적인 비밀을 꿰뚫어보는 주님의 지혜가 절실하다. 각 교회마다 서로 다른 색깔이 있지만 이러한 색깔들 간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각자의 색깔을 무시하고 하나의 색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닌 무지개와 같은 색깔들의 조화가 필요하다. 북한선교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소명이자 축복이며 한국교회는 북한선교를 통해 한반도라는 틀에서 벗어나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할 것이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야 할 것이며 한국교회가 주님의 제사장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혈의 온전함을 입어야 할 것이다.